



덕진동주민센터, 저소득대학생 자녀 장학금 전달

전주시 덕진동 주민센터(동장 박봉균)는 17일 덕진동에 주소를 둔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관내 저소득 세대의 대학입 학생 자녀로 주민센터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80만 원을 지원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덕진동에 모인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박봉균 덕진동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금을 후원해 준 지역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효자2동 자율방재단,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캠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자율방재단(단장 김인순)은 17일 안행교사거리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대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 자율방재단은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홍보용 마스크를 나눠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인순 단장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진안군 안천면, 반려식물 나눔행사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협의체)는 17일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반려식물 나눔 참여자는 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안환자 등 15가구를 추천해 선정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돌봄가구를 추천한 협의체 위원이 가구를 개별 방문했으며 반려식물은 다육 식물로 준비해 이웃에게 분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금춘 민간위원장은 "반려식물인 다육이가 지속적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협의체 위원님들이 이웃의 돌봄가구를 직접 추천하고 방문하면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인=우태만 기자

어려운 이웃위해 집수리나눔 실천

팔복동 휴비스 · 주민자치위 · 주민센터 함께 사랑 나눔

휴비스는 관내 취약계층 중 노후된 벽지 및 장판교체 등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세대를 위하여 사용해달라며 17일 500만원을 팔복동에 기탁했다. 이 기금은 팔복동(동장 이현숙) 및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정영)와 함께 공동으로 관내 취약계층 세대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평소 휴비스는 어려운 이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써 팔복동 관내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물품 후원 등 꾸준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어, 모범 기업으로써 분이 되고 있다. 황정영 팔복동주민자치위원장은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기업인 휴비스와 함께 정성을 모아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팔복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휴비스 고성옥 전주공장장은 "작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화학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주어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숙 팔복동장은 "항상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김현욱 대표, 전북대 강의실 리모델링비 기부

김제에서 청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욱 대표(80학번)가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써달라며 3,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 16일 김 대표를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전북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가정에 4천만 원을 기부하고,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터에 가입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이 기금을 활용해 동물자원과학과 강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이 강의실에 청운농장 김현욱 대표라는 이름을 새겨 기부자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김현욱 대표는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선배로서 모교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뜻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좋은 강의실에서 우리 후배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기업 둘레 · 김포대학, 문화산업 발전 업무협약

지난 15일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둘레(이사장 인수용)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K-culture전문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산업 프로그램 개발과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영 총장은 "정읍시 문화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정읍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용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김포대학교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정읍의 문화산업 활성화와 정읍시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콘텐츠가 창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가을 지역축제를 기획중인 인수용 이사장은 "정읍의 각종행사과 지역교류 축제



등에서 김포대학교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정읍시가 보유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창조역량강화·지역문화 가치제고·문화향유 환경조성의 3대 핵심가치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둘레의 업무협약 체결은 정읍지역을 넘어 우수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이란 점이 기대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16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및 훈련은 시민 유동인구가 많은 공설시장 등에서 실시했으며, 소방관 15명, 소방차량 5대를 동원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시령에 따른 긴급출동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차 단속 및 계도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길 터주기 방법 안내 방송 등이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동승체험도 함께 실시했으며, 체험에는 도통초 학생 3명이 함께해 소방서 견학, 상송정체구간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했다. 소방차 동승체험은 월 1회 길 터주기 캠페인·훈련 실시와 함께 진행되며 희망자는 남원소방서 홈페이지와 063-630-8232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완주군청 이한빛, 태극마크 획득

완주군청 레슬링부 이한빛(여자자유형62kg) 선수가 2022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7일 완주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한빛은 지난 2월 열린 1차 선발전에 이어 두 번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종선발전 없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한빛은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주(서울중구청)에게 8대0 풀승을 따내고 두 번째 경기는 상대의 기권으로 손쉽게 결승전에 올랐다. 김보배(광창군청)와의 결승전에서는 1분 20여초 만에 10대0 풀승을 하여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한빛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와 오는 9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